

‘독존’에서 ‘공존’으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해석에 대한 일고찰

김 경 희 | 성신여자대학교

본 논문은 『군주론』을 ‘독존’에서 ‘공존’의 정치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군주론』에 대한 기존 해석들은 대부분 영웅으로서의 군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군주론』의 정치를 군주 혼자만이 존재하는 독존의 정치로 파악해 왔던 것이다. 군주의 뛰어난 능력이 그의 권력이며, 군주가 곧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군주의 ‘능력’과 그의 ‘권력’은 다른 것이다. 군주의 능력은 군주가 소유하는 것이지만, 그의 권력은 타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인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그들로 구성된 자국군을 가져야 확고한 권력기반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군주가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권력기반인 타인에 대한 관점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존의 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의 권력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군주의 뛰어난 역량은 자신이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여타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치의 주인임을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틀어 강조했던 것은 혼자만이 중심이 되는 정치는 나라를 유약하게 만들고, 몰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공존’의 정치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마키아벨리, 군주론, 독존과 공존의 정치, 역량, 권력

I. 머리말

서양정치사상사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Il Principe*)』만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서도 없을 것이다. 권모술수의 대가로 마키아벨리를 낙인찍게 한 것도 『군주론』이었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행태를 일컫는 ‘마키아벨리즘’의 이름을 낳게 한 것도 바로 『군주론』이었다. 한편, 이렇게 악명 높은 『군주론』이 공화주의자들에게 해서는 인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저서로 그려진다. 폭군의 폐해를 인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주론』에 대한 해석의 역사는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밀

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종교전쟁 시기에 기존 신앙과 도덕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람들은 마키아벨리를 폭군의 조언자이자 악마적 교의의 교사라고 불렀으며, 군주정과 폭군정에 반대했던 이들은 그를 폭군정의 해악을 인민들에게 일깨워 준 계몽주의자로 판단한다. 민족국가의 형성이 늦었던 독일에서 마키아벨리는 혼란을 극복하고 외세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언자로 간주되었다.

폭군의 조언서로서 부정적으로 비쳐진 『군주론』이건 혹은 인민을 위해 폭군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 저술된 긍정적인 의미의 『군주론』이건 『군주론』에 대한 해석은 군주중심으로 읽혀져 왔다.¹⁾ 이것은 현대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근대를 개인성의 탄생에서 본 부르크하르트(Burckhardt)의 르네상스 연구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낮은 계층에서 일약 군주로 오른 용병대장들을 르네상스적 인간의 전형으로 그리고 있다(Burckhardt 1988). 또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Mussolini)와 독일의 히틀러(Hitler)에서 나타난 ‘지도자(Führer/Duce)’들의 탄생은 마키아벨리적 권력국가의 실현으로 해석되었고 그 배후에는 『군주론』이 있다고 해석되었다.²⁾

군주 일인(一人) 중심의 해석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나서 더 이상 현실 정치적 상황과 『군주론』을 연결시켜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된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롭게 된 연구자들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전후 역사적·사상적 연관관계 속에서 이해하거나, 그가 위치했던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 속에서 ‘발생적(genetic)’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되었다.³⁾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들을 통해 마키아벨리는 군주주의자, 공화주의자 혹은 군주주의자에서 공화주의자로 전향한 이 등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군주론』의 해석에 있어 군주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게 남아 있다.

1) 『군주론』에 나타난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도덕의 영역에서 분리시켜 정치의 독자성을 정초지는 이로 마키아벨리를 바라보거나(Croce 1945; Chabod 1958), 비슷한 맥락에서 마키아벨리를 근대 정치과학의 창조자(Cassirer 1988; Olschki 1945)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에 대한 설명은 『군주론』의 주요 행위자를 누구로 그리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마키아벨리 해석경향에 대해서는 코크렌(Cochrane 1961)과 기르켄(Geerken 1976) 참조.

2) 『군주론』을 자신의 침대 옆의 소형 서랍대 위에 놓고 지낼 정도로 히틀러가 『군주론』을 탐독했다고 주장하는 라우쉬닝(Rauschnig)에 대해서는 부크(Buck 1985, 154-155)와 파울(Faul 1961, 302-337)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코크렌(Cochrane 1961, 130-131) 참조.

이제까지 『군주론』의 해석사는 공히 초점을 군주 개인에게 맞추어져 왔다. 군주에게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정적인 군주의 상에서도 역시 조명은 군주 개인에게 비추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군주론』은 군주 혹은 정치 지도자 혼자만을 위한 ‘독존(獨存)의 정치학’을 대표하게 되었다. 사의 추구만을 위한 처세술, 권력장악을 위한 냉혹한 권모술수 등등은 바로 독존의 정치학을 집약하는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독존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한 지침서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독존의 정치학’의 바이블로 여겨져 온 『군주론』을 전혀 다르게 보려 한다. 『군주론』을 ‘공존(共存)의 정치학’을 위한 저술로 이해하려 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악명 높은 저서에서 사실 군주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인민과 귀족의 힘, 그중에서도 인민의 힘에 의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정치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에게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군주의 능력(virtu)은 군주 자신에게 있지만 군주의 권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인민들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군주의 권력은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권력으로 확장되게 된다. 권력은 손에 장악하는 강권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생성되는 활력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II. 독존의 정치로서 『군주론』 해석

1. 종교전쟁시대에서 민족국가 건설기까지의 『군주론』 이해

우선 마키아벨리에게 ‘악의 화신’이나 ‘폭군의 조연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만든 것은 종교전쟁시기 종교 갈등 속에서 드러난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서였다. 마키아벨리가 죽고 나서 5년만인 1532년에 출판된 『군주론』은 반종교개혁의 파고 속에서 1559년 로마 교황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된다. 종교와 도덕을 부정하고 악을 전파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렇게 선보다는 악을 옹호하는 저서로 낙인찍힌 『군주론』의 악명을 가중시킨 것은 종교 갈등 속에서 일어난 정치권력의 비종교적·비도덕적 행동을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함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사건은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다. 헨리 8세의 이혼을 반대하여 축출당한 추기경 폴(Reginald Pole)은 1539년에 쓴 『칼 5세에 올리

는 변론(*Apologia ad Carolum Quintum*)에서 헨리 8세의 정책을 뒷받침하였던 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헨리 8세의 조언자였던 토마스 크롬웰(Thomas Cromwell)과의 대화를 회상하며 폴 추기경이 지적하였던 것은 군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신앙을 버리고 교회와 대립할 수 있었던 것은 마키아벨리의 악마적 가르침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 종교갈등은 프랑스에서도 있었다. 프랑스의 신교도들인 위그노파와 카톨릭파간의 화해를 위해 마련된 정략결혼식 전날 카톨릭파는 화해와 결혼식의 축하분위기로 인해 긴장을 풀고 있던 위그노파 지도자들을 죽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1572년에 일어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Massacre de la Saint-Bartholomew)’이다. 이 일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마키아벨리의 이름이 제목에 포함된 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위그노파였던 이노상 장티에(*Innocent Gentillet*)가 쓴 『반마키아벨리론(*Contre Machiavel*)』이다. 여기서 장티에는 카톨릭파의 수장으로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을 저지른 왕후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를 비난한다. 그녀가 권모술수를 이용한 폭군의 정치를 저지른 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배웠다는 것이다.⁵⁾ 이 시기 이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덕을 무시하여도 좋다는 폭군을 위한 악마적 가르침의 대표적 저서로서 『군주론』의 이미지는 현대까지도 여전히 명위를 떨치고 있다.⁶⁾

이렇게 사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이제 시민계급의 성장과 함께 공화주의를 주창하는 이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된다. 그들은 『군주론』을 폭군을 위한 저서가 아니라, 폭군의 행태와 그 해악을 인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저서로 파악한다. 스피노자(*Spinoza*)는 자신의 『신학-정치론(*Tractatus Theologico-Politicus*)』에서 『군주론』에 대해 평하기를 “자유로운 대중이 그 복리를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맡기는 데 있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적고 있다.⁷⁾ 루소 또한 이러한 사고를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군주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원칙

4) 이에 대해서는 도날드슨(*Donaldson 1988*) 1장 및 곽차섭(1994), 부크(*Buck 1985*), 길버트(*Gilbert 1973*) 참조.

5) 카트린 드 메디치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정한 로렌초 데 메디치의 자녀였다.

6) 16세기 당시 무자비하고 악마적 사술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마키아벨리는 이미 영국 극작가들의 작품들 속에 흔히 등장하는 주제였다.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몰타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에서 마키아벨리는 비도덕적이자 사악한 인물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Gilbert 118*). 현대에서는 스트라우스가 마키아벨리를 ‘악의 교사’로 명명하고 있다(*Strauss 2006*).

7) 캣시러(*Cassirer 1988, 155-156*) 참조.

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마키아벨리가 명백하게 보여준 것도 이것이다. 그는 국왕들을 가르치는 척 가장하면서 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공화주의자의 책이다(Rousseau 1999, 95).” 그런데 이러한 공화주의적 해석은 『군주론』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지향하는 대상을 바꿈으로써 행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자인 마키아벨리의 의도를 달리 해석하는데서 나온 것이다. 『군주론』의 내용은 역시 폭군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폭군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군의 해악을 알리기 위한 계몽서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군주론』의 저자로서 이제까지 비난의 대상이었던 마키아벨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더 적극적인 평가는 근대국가의 출발이 늦었던 독일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헤겔(G.W.F. Hegel) 그리고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에 의해서 수행된다. 헤르더는 『인간성의 증진을 위한 서한집(Briefe zur Beförderung der Humanität)』에서 마키아벨리의 저서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이해되어 온 이유는 마키아벨리의 시대가 국가이성의 법칙에 순종한, 도덕과 정치가 분리된 시대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 그런 의미에서 『군주론』은 “풍자적 저술이나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마키아벨리의 동시대인을 위해 쓰인 정치학의 걸작”이라는 것이다(Cassirer 1988, 158). 이렇게 역사성 속에서 마키아벨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헤겔에 이어지게 된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독일제국이 패배한 직후 저술한 『독일헌정(Die Verfassung Deutschlands)』이라는 소책자를 헤겔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독일은 한 국가이기를 그쳤다(Cassirer 1988, 158).” 외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국가 존망의 기로라는 위기에 처했었던 젊은 헤겔은 마키아벨리의 이탈리아와 자신의 독일이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이에 헤겔은 독일의 마키아벨리가 되고자 하였던 것이다.⁹⁾ 암흑의 시기에 국가건설의 염원을 표현했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당시 독일 상황과 비교하며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키아벨리가 선구적으로 보았던, 이탈리아를 하나의 국가로 고양시키려던 목적은 그의 저서에서 폭군정의 옹호나 야욕에 찬 지배자를 위한 좋은 지침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보

8) 부크(Buck 1985, 150)와 광차섭(1994, 234) 참조.

9) 부크(Buck 1985)의 책 150쪽 참조.

지 못한 무지로 인해 묻혀버렸다. ...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불에 탄 사지를 라벤더물을 가지고 치료할 수는 없다; 독살과 암살이 만연한 상태에서 약한 처방은 듣지를 않는다. 고사 직선의 생명은 오로지 강력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생될 수 있다 (Hegel 1986, 555).

피히테는 1807년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에서 출간된 『베스타(Vesta)』란 잡지에 “마키아벨리에 대해서(Über Machiavelli)”라는 글을 게재한다. 여기서 피히테는 모든 군주에게 훌륭한 조언서가 될 수 있는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궁극적으로 바란 것은 풍전 등화와 같은 이탈리아의 상황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었다라고 말한다. 군주가 최고로 여겨야 하는 의무는 국가의 자기보존으로서 그것을 위해 자기의 온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Fichte 1962, 226). 어떠한 판관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 간의 관계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보존을 최고의 목적으로 가지는 군주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최고의 국가이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곽차섭 1994, 235).

이러한 독일의 국가건설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강한 권력에의 향수는 결국 히틀러의 등장으로 그 비극적 결말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전에 권력국가에 대한 사상은 국가이성론으로 세련화되어 진다. 국가이성론을 언급하기 전에 르네상스의 핵심을 개인성의 탄생에서 찾은 부르크하르트를 살펴보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라는 책을 통해 이탈리아 르네상스 연구의 한 획을 그은 부르크하르트는 “예술품으로서의 국가”와 “개성의 탄생”이라는 말을 통해 마키아벨리의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 부르크하르트가 보기에 르네상스에서 인간의 개인성이 만개하게 되고 그 개인성의 권력작용을 통해 국가라는 예술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재능이 다른 서구 제국의 법률이나 습관보다도 더욱 유력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Burckhardt 1988, 50). 이러한 개인성을 구현한 이탈리아 군주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냉정한 이해타산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재능과 의식의 창조물로서 국가, 예술품으로서의 국가”를 창조해 나갔다는 것이다(Burckhardt 1988, 33). 이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개인성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은 바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Francesco Sforza)였던 것이다. 부르크하르트는 스포르차야말로 미천한 신분을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한나라의 군주가 되었던 인물로 “모든 이탈리아인 중에서 아마도 15세기의 심정에 가장 알맞은 인물이었”으며, “천재적이며 개성적 역량의 승리가 이처럼 화려하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Burckhardt 1988, 67).¹⁰⁾ 윤리나 도덕 혹은 법보다는 그러한 것의 기반으로서 국가를 창조하는 개인의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법이나 윤리들을 무시하고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국가를 장악한 용병대장의 칭송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르크하르트가 근대국가의 탄생을 개인성을 담지한 위대한 인물들의 창조의 결과로 보았다면, 마이네케는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권력을 독점하며, 자신의 보전을 위해서는 법이나 윤리 등을 무시하는 국가이성의 탄생을 발견하였다.¹¹⁾ 마이네케는 『근대의 국가이성의 이념』에서 마키아벨리를 국가이성의 시초자로 인정한다.¹²⁾ “국가이성이란 국가 행동의 기본원칙, 국가의 운동원리이다. 그것은 건전하고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다(Meinecke 1990, 31).” 이러한 국가이성의 목표는 “국가 및 국가 속에 포함된 국민공동체의 복지”이며, “권력· 권력주장· 권력확대는 그것을 위해 절대로 요구되어야 할 불가결의 수단이다(Meinecke 1990, 33).” 국가이성은 이러한 목표들을 위해 그 “정치행동에서 고도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요구”한다(Meinecke 1990, 37). 이러한 국가이성론에 비추어 볼 때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에게 국가이성의 정초자라는 이름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마이네케는 보고 있다.

우선 마키아벨리는 “합리적· 경험적 및 계산하는 요소”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가 최고의 완성을 본 인물이기에 “국가의 형태· 기능 및 생활 조건을 규명하고 계산”하는데 그의 열정을 쏟았다고 마이네케는 말한다(Meinecke 1990, 63). 이러한 국가이성의 명령에 충실했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하나의 일관된 대주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

10)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6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군주가 된 인물의 대표적인 예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들고 있다. 또한 부르크하르트는 마키아벨리가 한 사람의 입법자를 통해 피렌체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각주에서 지적하면서 그를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다(Burckhardt 1988, 113-114).

11) “설로써나 부르크하르트가 생각한 바와 같이 권력은 <그 자체 악(an sich böse)>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며 선악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것이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남용하고 법이나 도덕이 내세우는 한계를 넘어서 팽창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도덕적 유혹에 빠진다(Meinecke 1990, 44-45).”

12) 마이네케의 책은 우리나라말로 『국가권력의 이념사』로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원제목(Die Idee der Staatsräson in der neueren Geschichte)을 직역하면 『근대의 국가이성의 이념』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한글 번역본의 의역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번역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가이성론’에서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상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의역보다는 직역의 제목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국가이성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마키아벨리가 아니라, 그의 동시대인이었던 귀차르디니(Guicciardini)였다. 국가이성론에 대해서는 곽차섭(1996) 참조.

한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역량〉의 투쟁”이라는 것이다(Meinecke 1990, 76).¹³⁾ 외세의 침략과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구비하고 있지 못했던 피렌체와 이탈리아는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운명의 힘에 굴복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국가이성의 담지자로서 군주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운명’의 제어였고, 그것을 위해 그의 ‘역량’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이네케가 보기에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의 가장 내면적인 사상이 표현된 저서로 그것은 바로 “몰락에 처한 한 민족을 전체군주의 〈역량〉과 〈필요〉에 의해 강요된 모든 수단의 지레의 힘에 의해 국가의 새로운 덕과 힘을 향해 재생시키는 것”이었다(Meinecke 1990, 76).

〈역량〉은 〈운명〉을 격퇴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운명〉은 농간을 부린다. 그러므로 〈역량〉도 부득이한 경우 농간을 부려도 좋다. 매우 솔직히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즘, 즉 국가행동에 있어서는 국가에 필요한 권력을 획득하고, 혹은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당한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하는, 저 악평 높은 교설의 내면적·정신적 기원이다. 이제 스스로를 데몬적인 자연의 힘으로서 자각하여, 이에는 이로써 복수함은, 초월적인 하늘의 빛 모두를 빼앗기고, 데몬적인 자연의 폭력과 더불어 홀로 전쟁터에 남겨진 인간인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생각으로서는 운명을 제어하기 위해 〈역량〉은 모든 무기를 철 충분한 내면적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Meinecke 1990, 70).

『군주론』의 군주는 도덕도 뛰어넘는 역량을 지닌 채 국가의 모든 것을 어깨에 홀로 짊어진 영웅이 되는 것이다.

2. 현대의 『군주론』 해석

현대의 『군주론』 해석은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의 직접적 연관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이전의 ‘정치적인’ 해석경향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보려는 ‘학문적인’ 해석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역사적 맥락이나 사상사적 맥락에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군주론』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특히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주저인 『로마사 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에 대한 공화주의적 이해가 확장되면서 군주를 위한 저

13) 우리말 번역본에는 비르투(virtù)를 ‘덕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비르투는 마이네케도 설명하고 있듯이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덕성’보다는 ‘역량’이 더 적절한 번역어로 보인다.

서인 『군주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군주론』을 파악하는 입장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군주론』이 군주를 위한 저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주론』이 군주를 위한 저서가 아니라 공화정을 위한 저서라는 것이다. 후자의 주장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군주론』은 군주를 속이고 몰락시키기 위한 저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주론』의 신군주는 위기 해결자나 혁신자의 역할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화정을 건설하기 위해 우선 혼란과 위기에 놓인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들도 모두 군주를 중심에 놓고 『군주론』을 보는 데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군주는 『군주론』의 유일한 행위자인 것이다.

우선, 『군주론』을 군주를 위한 저서로 보는 입장으로는 스키너(Skinner)의 입장을 들 수 있다.¹⁴⁾ 스키너는 사상사적 전통 속에서 『군주론』을 파악한다. 르네상스기 군주귀감용 저술의 수용과 극복의 맥락 속에서 『군주론』을 보는 것이다. 군주의 덕행을 강조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의 핵심임을 주장하는 중세후기와 르네상스기의 군주귀감용 저술은 군주의 덕망(virtus)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비르투, 운명 및 군주다운 목표의 성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Skinner 1993, 78). 하지만 스키너가 보기에 인문주의자들과 동일한 용어와 문제의식을 보여준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위한 조언서에서 추진했던 혁명은 사실상 핵심 개념인 비르투를 재정의하는” 데 있었다(Skinner 1993, 83). 마키아벨리는 그 단어가 지녔던 “군주다운 덕목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비르투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연이 지시하는 것을 기꺼이 무엇이나 수행하려는 의사”야말로 비르투를 가진 군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볼 때 “비르투는 정확하게 군주에게 있어서 도덕적 유연성이라는 필수적인 자질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말한다(Skinner 1993, 84). 스키너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위대한 업적들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군주에게 충고하려 했던 열망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Skinner 1993, 98).

역사적·사상사적 맥락에서 파악한 스키너와는 달리 월린(Wolin)은 “정치사상가를 몰

14) 이 말은 스키너가 마키아벨리를 군주주의자로 보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경향은 마키아벨리를 공화주의자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군주론』을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의 고유 가치에 대한 인정이란 측면에서 『군주론』을 보는 입장의 대표적인 예로 스키너와 다른 이들을 다루고자 한다. 스키너는 『군주론』의 군주에 대한 모든 조언은 ‘안전’이라는 것을 향하는 반면, 『로마사 논고』에서는 ‘자유’가 가장 기본적 가치라고 언급한다(Skinner 2004, 348).

두께 하는 일련의 항구적인 질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주론』을 분석한다. 그 질문들 이란 바로 “정치와 윤리의 문제, 폭력의 문제, 정치 이론의 자율성의 문제” 등에 관한 문제이다(강정인 1993, 14).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 야심가인 새로운 인간에 관해 마키아벨리는 근대 정치를 사로잡게 되는 인상적인 인물을 그려내”는데, 그것은 바로 『군주론』의 신군주였던 것이다(Wolin 1993, 162). 『군주론』의 정치는 비르투라는 특출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 그리는 개인 중심의 정치였던 것이다.

정치 행위자에 대한 관념은 주로 『군주론』에서 전개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저작에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국민적인 쇄신이 출중한 재능을 가진 한 개인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가를 기술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 전반이 개인적인 정치(*personal politics*)에 대한 관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며, 군주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인해 비인격적인 제도를 통해 정치가 수행될 수 있다는 어떠한 제안도 그 빛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Wolin 1993, 209).

그런데 이러한 영웅적인 군주의 역량을 설명하고 나서 월린은 『로마사 논고』의 공화제와 관련하여 군주의 역량을 재정의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군주는 자신의 덕을 실현하는 행위를 통해 그 자신을 없어도 무방한 존재로 만드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Wolin 1993, 213). 디츠는 이러한 입장을 『군주론』을 파악하는 ‘강한’ 공화주의적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Dietz 1986, 780). 『군주론』은 근본적으로 공화주의자의 저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에 임박하여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의 신군주에 의지하여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의 회복자’로서 군주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디츠는 ‘약한’ 공화주의적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 볼 때 『군주론』은 일종의 ‘일탈(*aberration*)’이었다. 피렌체의 절망적인 미래 앞에서 메디치 가문이 정권을 잡았고, 임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메디치가에 유일한 희망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화주의자 마키아벨리는 잠시 자신의 본심을 접고 『군주론』을 저술했다는 것이다(Dietz 1986, 778-779).¹⁵⁾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예전의 공화주의자로 돌아와 『로마사 논

15) 디츠는 그녀의 글에서 마키아벨리를 공화주의자라고 파악하는 연구자들이 『군주론』을 해석하는 경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것들은 본문에 나오듯이 ‘강한’ 공화주의적 입장과 ‘약한’ 공화주의적 입장이다. 강한 공화주의적 입장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루소식으로 군주제의 해악을 인민에게 계몽시키기 위해 『군주론』을 저술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를 저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약한'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군주론』의 군주는 위기와 그것을 도래시킨 제도의 타락을 극복해야 하는 "혁신자(innovator)"로 나타나게 된다. 포콕은 『군주론』을 당시 피렌체의 어떤 정치그룹의 이념도 대변하지 않는 저서로 바라본다. 하지만 『군주론』은 당시 피렌체 정치의 핵심이슈를 다루었는데 그것은 '혁신'과 시민들의 타락에서 온 '운명'의 문제였다(Pocock 1975, 156-160). 타락으로 인해 시민들의 역량이 쇠퇴해지자 예측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운명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것에 맞서야 하는 것은 당시 메디치가의 복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피렌체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신군주이자 혁신자의 뛰어난 역량뿐이라는 것이다(Pocock 1975, 160). 혁신자의 뛰어난 역량을 통해 운명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군주론』에 나타난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탈리아어권과 독일어권에서 마키아벨리 연구의 선구에서 있는 사소(Sasso)와 뮌클러(Münkler)도 비슷한 시각에서 『군주론』을 바라본다. 마키아벨리를 공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나, 『군주론』은 그 나름 고유의 지위와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존망의 위기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최상의 문제였던 것이다. 국가를 절망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특출한 역량을 지닌 신군주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군주론』의 핵심주제는 신군주의 뛰어난 역량과 그것이 제어해야 하는 운명과의 대결이다(Sasso 1965, 160-162; Münkler 1994, 106).

이렇게 영웅적 군주중심으로 『군주론』을 해석하는 것은 소위 공화주의적 『군주론』 해석

『군주론』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군주귀감서풍의 글을 패리디한 작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본문에 언급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단계의 질서 잡힌 국가를 세우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다. 디츠는 이 세 가지 입장을 모두 비판한다. 첫 번째 논의에 대해서는 마키아벨리가 공화주의자들이 그것을 읽도록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를 위한 책 일리 없다는 것이다(Dietz 1986, 779). 두 번째 입장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보여준, 정치세계를 재구성하려는 바람을 제대로 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Dietz 1986, 780).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디츠는 윌린이 "건국자가 어떻게 스스로 부차적이 되거나 혹은 그가 어떻게 공화국에 길을 내줄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Dietz 1986, 780). 반면 디츠는 『군주론』을 당시의 메디치가 군주를 숙여 몰락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 『군주론』을 저술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군주는 '도시에 정주해야 한다는 것'이나 '시민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성곽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조언들이 바로 군주를 몰락시키기 위한 마키아벨리의 계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논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디츠가 위의 강한 공화주의 해석의 두 번째 입장을 비판하면서 언급하고 있듯이 『군주론』의 적극적인 주장 중에 하나인 군주의 역량(virt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에게도 적용된다. 『군주론』을 관통하는 문제를 역량 대 운명으로 보는 이들에게 역량은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된다. 신군주는 영웅적 개인이 되며 역사의 현장을 홀로 누비는 독존의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군주주의자 입장에서 파악하건 공화주의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건 차이는 ‘악한’ 영웅이나 ‘선한’ 영웅이냐에 있을 뿐이다.

III. 공존의 정치로서 『군주론』 해석

1. 정치체론으로 바라본 『군주론』 - 파렐(Parel)의 해석

이렇게 군주와 그의 역량만을 언급했던 기존 해석과는 달리 군주국을 구성하는 구성계층에 눈을 돌리는 이해방식이 있다. 파렐은 마키아벨리를 이해하는데 르네상스 당시 점성술 개념과 의학 개념이 핵심적이라고 말한다. 거시적인 차원에 적용되는 점성술의 개념을 통해서도 운명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이념을 이해하려 하였고, 미시적 차원의 의학개념을 가지고 그의 국가이론을 몸체의 은유로 살펴보려 한다.¹⁶⁾ 이 때 사용되는 의학개념이 바로 우모리(umori/humours)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4체액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체액설에 의하면 인간의 몸은 4개의 체액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국가관도 이에 근거해 정치체(body politic)로서 국가는 인체처럼 다양한 정치 계층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파렐은 이러한 사고는 르네상스 의학관에서 나온 것으로 그 기원은 히포크라테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체액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 몸은 혈액(blood), 점액(phlegm), 황담즙(yellow bile), 그리고 흑담즙(black bile)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인간 몸의 체질을 규정하는 것들이며 병과 건강을 유발한다. 건강 상태는 무엇보다도 이 구성요소들이 그 강도나 질에 있어서 각각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잘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통/병은 그 요소들 중 하나가 부족하거나 과도해질 때 나타난다. 이들 중 하나가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있을 때, 그것이 떨어져 나온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과도해진 곳에서 병이 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16) 파렐과 비슷한 관점으로 마키아벨리를 분석한 글로는 바수(Basu 1990) 참조.

(Parel 1992, 101).

이렇게 볼 때 체액설의 핵심관심은 인체의 구성과 그 구성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구성요소들 간의 균형에 관한 것이다. 인체가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그 구성 체액들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어느 한 체액이 그 알맞은 장소에서 이탈하여 흘러서기를 시도할 경우 균형은 깨지고 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체액이 그들 고유의 충족상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정치이론에 중요한 개념이 도출되는 데 그것은 '만족(satisfaction)'이라는 개념이다(Parel 1992, 102). 정치체의 체액인 국가 구성의 핵심계층들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혼란과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파렐은 마키아벨리가 우모리란 개념을 통해 한 정치공동체의 정치사회 집단 혹은 계층들을 지칭하는 것에 주목한다.¹⁷⁾ 이 집단들의 구성에 따라 정치체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파렐은 이러한 '구성(constitution)'의 관점에서 『군주론』을 분석한다. 우모리의 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각의 군주국은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계층을 가지고 있고, 군주는 강력한 계층과 협동하고 그들을 만족시켜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군주론』 9장에서는 정치체의 핵심구성세력으로서 귀족과 인민만을 언급하지만, 로마 황제정을 언급하는 19장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세력으로서 군대를 설명한다. 세베루스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군대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각 정치체의 핵심 구성계층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힘에 의지해야만 군주는 자신의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 정치체의 체액구조는 군주의 역량(virtù)이 그 정치체에서 성취할 수 있

17) 파렐에 의하면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우모리는 주로 다음의 4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한 사회 집단의 자연적인 욕구와 성정을 지시한다. 예컨대 『군주론』 9장에 나오듯 인민은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반면, 귀족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는 한 정치체의 사회집단들을 지시한다. 『군주론』의 19장에서 서술되는 로마 황제정이라는 정치체의 우모리들은 귀족, 인민 그리고 군대였다. 세 번째로 우모리는 정치집단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된 행위들을 의미한다. 논고 1권 37장에서 농지법에 의해 야기된 소요를 마키아벨리는 인민들과 귀족들 간의 싸움에서 일어난 우모리라고 부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말한다. 파렐은 이를 위해 『군주론』 9장에서 귀족과 인민이라는 상이한 두 우모리의 관계 속에서 군주제나 공화제 혹은 무정부상태가 나타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Parel 1992, 105-107). 필자의 의견으로는 파렐이 지적한 네 번째 의미는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모리의 관계 속에서 산출되는 정체와 그것을 구성하는 계층이나 집단으로서 우모리는 다르기 때문이다.

는 것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Parel 1992, 113-121).”

파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군주론』의 군주는 자신의 역량을 통해 힘 있는 집단에 물질적 만족과 정치적 안정 등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군주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체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세력간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군주는 앞서 언급된 기존의 군주 해석과는 판이한 입장차를 드러낸다. 기존의 해석이 신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서 군주를 바라본다면, 정치체의 관점에서 본 군주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군주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세력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치체의 핵심구성원들의 관계에 따라 제한되는 능력을 가진 군주는 그것들을 뛰어넘어 소위 ‘판’을 재구성해 낼 수 있는 군주와는 다른 것이다. 기존의 해석이 정치체 바깥에 위치해서 자신의 뛰어난 역량을 통해 공동체를 재구성해 내는 군주를 그렸다면, 정치체론을 통해 바라본 파렐의 『군주론』 해석은 정치체 내에서 다른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 행동해야 하는 군주를 보여준다. 독존의 정치를 행해왔던 기존 『군주론』의 군주와 달리 공존의 정치를 행해야 하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파렐은 공존의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군주의 능력은 군주의 것이지만 그의 권력은 타인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으로 확장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체의 두 가지 핵심관점 중에서 하나를 간과한 데서 오는 것이다. 정치체의 핵심 관점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들과 그들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그들의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정치체의 힘 혹은 권력을 사고하는 것이다. 몸체를 구성하는 체액의 각각과 그것들의 관계가 하나라면, 그들의 관계로 구성되는 몸체의 건강 혹은 힘 있는 상태가 다른 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파렐은 앞에서 보았듯이 구성세력들과 그들의 관계를 주목하는 것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들의 관계로 구성되는 정치체 전체 다시 말해 권력을 바라보는 데는 실패하였다. 정치체의 두 가지 핵심관점을 통해서 보면 군주의 능력과 그의 권력 다시 말해 군주국의 힘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군주론』 해석은 군주를 영웅이자 유일한 행위자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그의 뛰어난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주의 힘이 곧 그 군주국의 힘과 등치되는 것처럼 사고되었다. 다시 말해 군주의 뛰어난 역량이 군주국의 힘과 역량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역량과 군주의 권력 다시 말해 군주국의 힘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군주의 권력이자 군주국의 힘은 군주국을 구성하는 세력들의 관계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뛰어난 군주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군주국의 힘을 최대로 모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파렐은 정치체의 관점을 통해 군주의 모습이 독존적일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역량과 권력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군주 개인의 능력이자 역량 개념은 기본적으로 독존의 정치요소이다. 반면 구성원들의 관계를 모아내는 권력은 공존의 정치에 핵심적인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정치체의 관점을 통해 『군주론』에서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공존의 정치를 통해 정치체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정치공동체의 힘을 배가 시키는 것이었다.

2. 군주의 역량과 군주의 권력

파렐도 지적하였듯이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역량이 정치체의 구성에 제한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것은 『군주론』 4장에서 투르크와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군주국의 유형을 설명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그는 “역사상 알려진 모든 군주국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치되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는 군주가 자신의 절대적인 지지와 복종 하에 지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군주가 제후와 더불어 통치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당시 투르크에 해당되고 후자는 프랑스라고 말한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투르크 유형의 국가는 정복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정복하면 유지하기가 아주 쉬운” 반면,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몇 가지 점에서 정복하기가 더 쉽지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Machiavelli 2008, 35). 그 이유는 투르크 같은 경우 귀족들은 군주의 은혜를 입어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군주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주가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기에 귀족들은 군주의 충복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승리를 얻고 그러한 군주의 가문을 제거하면 그런 신망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지배하기는 쉽다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왕과 제후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열이 잦고 공격할 마음만 먹으면 동조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승리를 얻기도 쉬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승리 후에 그것을 지킬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군주의 가문을 제거해도 비슷한 힘을 가진 많은 제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쉽게 얻었던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마키아벨리는 어떤 나라는 정복 후에 쉽게 지배할 수 있었던 반면 다른 나라는 어렵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그러한 상반된 결과는 “정복자의 역량(virtù) 여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복된 지역들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군주의 역량은 상황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구속적인 역량의 의미는 『군주론』에서 역량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6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국을 자신의 무력과 능력에 의해 얻은 이들에 대해 설명한다. 모세, 키로스, 로물루스 그리고 테세우스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행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기회를 잘 포착하여 그것을 활용한 것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행적과 생애를 검토해보면, 질료(materia)를 자신들이 생각한 최선의 형태로 빚어낼 기회(occasione)를 가진 것 이외에는 그들이 행운에 의존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더라면, 그들의 위대한 정신력(virtù dello animo)은 탕진되어버렸을 것이고, 그들에게 역량(virtù)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기회는 무산되어 버렸을 것입니다(Machiavelli 2008, 42-43).

역량은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잘 조합해 새로운 것으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인용한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더 잘 볼 수 있다. 모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억압과 탄압 속에서 누군가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먼저 있어야 했으며, 키로스 왕의 위업 역시 미디어인들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페르시아인들과 오랜 평화로 인해 유약해진 미디어인들이 있었어야 했다고 적고 있다. 위대한 인물들이 행했던 것은 이러한 조건과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역량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들이 이 위대한 인물들에게 운 좋게 다가온 것이라면, 그들이 지닌 비범한 역량(virtù)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회를 포착, 활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Machiavelli 2008, 43)."

물론 이러한 역량은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특출한 능력이다. 그것은 기회의 포착뿐만 아니라 포착한 기회를 통해 달성한 과업을 유지시키는 것까지 대비해야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능력이 행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하게 한다. 그것을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얻는 단계'와 '그것을 유지하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마키아벨리는 앞서 언급했던 『군주론』 6장에서 "자신의 역량으로 군주가 된 인물들은 권력을 얻는 데에 시련을 겪지만, 일단 권력을 쥐면 쉽게 유지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국가를 얻기 위해서 겪는 시련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국가를 세우고,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도입해야만 하는 새로운 제도과 통치양식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Machiavelli 2008, 43-44). 권력을 획득하는 단계와 유지하는 단계는 엄연히 다른 과정이며 유지하는 획득의 단

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세우는 것은 무척 힘들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치체 구성원들의 관계 때문이다. 구질서의 수혜자들은 신질서의 도입자에 적대적일 것이고, 신질서에서 이득을 볼 사람들은 구질서의 수혜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나아가 아직 구체적으로 본 이득이 없기에 신질서의 수립에 미온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적대자만 있는 신군주는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군주는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얻을 때부터 유지의 단계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치가의 몰락 후 피렌체에 공화제적 정부를 수립한 사보나롤라(Savonarola)가 실패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유지의 관점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력 같은 자신의 '기반(fondamento)'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신군주의 권력의 획득과 유지의 관점은 군주 개인의 역량에 기반 한 국가건설이 군주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힘에 의존해야 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군주의 권력은 군주 개인의 역량과 같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기반'이자 '토대'로 옮길 수 있는 '폰다멘토(fondamento)'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폰다멘토란 단어를 '자국군'(6장, 12장, 26장)과 '인민'(9장) 그리고 '좋은 법률과 군대(12장)' 등을 언급할 때 사용한다. 토대는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권력기반을 말하는 것으로 이 토대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토대의 주체는 군주 자신이 아니라 정치체를 이루고 있는 여타 세력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토대에 대한 사고를 통해 군주는 자신의 권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토대에 대한 설명은 『군주론』 7장을 구성하는 핵심주제이기도 하다. 7장을 시작하면서 마키아벨리는 6장에서와 같이 권좌에 오르기 전과 오르고 나서를 구분한다. 획득과 유지의 단계를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타 운에 의해 좀 더 쉽게 권력을 획득한 경우를 말하고 나서 그 경우에는 "모든 시련이 군주가 된 이후에 닥쳐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이나 요행에 의해 군주가 된 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타인의 호의에 의해 권좌에 오른 군주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군주가 되기 전에 쌓았던 토대(fondamenti)를 나중이라도 구축하"여야 함을 조언한다(Machiavelli 2008, 48). 위의 맥락에서 볼 때 권력유지를 위한 확고한 토대란 자기의 군대와 인민의 지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는 체자레 보르지아(Cesare Borgia)를 “미래의 권력을 위해서 강력한 토대(*grandi fondamenti*)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모범적인 예로 들고 있다. 보르지는 교황 알렉산더(Alexdander) 6세의 아들로 아버지의 권력을 통해 쉽게 공작의 지위에 오르고 교황군의 수장이 되었다. 하지만 군대는 자신의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벌의 군대와 원군에 의지했기에 자신의 권력이 불안정한 기반위에 세워져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군대를 가지기 위해 보르지는 우선 로마 군벌들의 추종자들을 분열시키고 일부를 자신의 추종자들로 만들어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시니갈리아(Sinigaglia)로 군벌의 수장들을 불러들여 몰살시킨 다음 혼란에 빠진 그 추종자들을 자신의 군대로 흡수하게 된다. 자신의 군대를 만듦으로써 보르지는 매우 “확고한 권력기반(*buoni fondamenti alla potenza*)”을 가지게 되었다고 마키아벨리는 평가한다(Machiavelli 2008, 53).

시니갈리아 사건을 통해 자신의 군대를 만들게 되었다면 보르지는 레미로 데 오르코(Remirro de Orco)를 참수시킴으로써 로마나 지역의 민심을 얻게 된다. 영주들의 약탈로 인해 도탄에 빠진 로마나 지역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보르지는 자신의 심복이자 냉혹한 인물이었던 레미로를 투입한다. 레미로는 단기간에 과감한 조치들로 인해 질서를 회복하지만 그 잔인함 인해 인민들은 두려움과 미움을 품게 된다. 이 때 보르지는 레미로를 참수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지지와 호의를 단번에 얻게 된다. 비록 보르지는 자신의 뛰어난 행적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후원자인 교황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곧이어 그가 병상에 눕는 바람에 권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강한 군사력과 로마나 인민들의 견고한 지지를 언급함으로써 “권력의 견고한 토대(*fondamenti*)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음을 강조한다(Machiavelli 2008, 57).

보르지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권력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토대는 자기군대와 인민의 지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군주론』의 서술은 권력의 기반으로서 자기군대와 인민의 지지에 대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9장에서는 인민의 지지가 군주 권력의 확고한 토대임을 밝히고 있다(Machiavelli 2008, 57).¹⁸⁾ 인민들은 수적으로도 다수일 뿐만 아니라,

18) 물론 마키아벨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기 앞서 “인민 위에서 있는 자는 진흙 위에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당시의 격언을 반박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인민의 호의에만 의지하고 무작정 그들만 믿는 무능한 군주에게나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Machiavelli 2008, 57). 반면 인민을 다룰 줄 알고, 인민들에게 사기를 불어넣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법을 알고 있는 군주는 인민들에게 배반당할 일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기존 도덕을 전복시키는 현실주의적 담론으로 유명한

지배욕과 교활함을 동시에 갖춘 귀족에 비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명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주국의 국력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를 다루는 10장에서는 타국의 공격에 맞설 강력한 군대와 인민의 지지가 언급된다. 전장들에서 이미 언급한 군사문제는 생략하고 인민들의 지지문제를 다루는 마키아벨리는 군주와 혼연 일체된 인민들의 지지만이 군주국을 지켜낼 수 있음을 역설한다.¹⁹⁾ 인민의 지지에 대한 강조 후에 마키아벨리는 12장과 13장에서 “모든 국가의 주된 기초(*principali fondamenti*)”로서 자국군의 우월성에 대해 설명한다. 당시 이탈리아가 외세의 전쟁터가 된 이유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용병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에게 용병은 “분열되어 있고, 야심만만하며, 기강이 문란하고, 신의가 없는” 군대이다. 그들은 보수를 받고 고용된 군대기에 “보수 이외에는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울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말한다(Machiavelli 2008, 84). 여기에 용병대장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권력과 명성만을 열망하기에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약하고, 겁 많으며, 신뢰할 수 없는 용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군대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민들로 충원되는 군대를 말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무력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의 명성처럼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없다”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이란 자국의 시민 또는 시민, 아니면 자신의 부하들로 구성된 군대를 말하며,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용병이나 원군입니다(Machiavelli 2008, 98-99).”

이러한 군주 권력의 기반으로서의 자기 군대와 인민의 지지에 대한 설명은 이탈리아 군주들이 나라를 잃은 이유를 설명하는 24장에서 한 번 더 강조된다.

나폴리 왕, 밀라노 공작 등과 같이 근래에 권력을 잃은 이탈리아의 군주들을 살펴보면, 이미 장황하게 논의한 것처럼, 첫째, 그들이 모두 군사적으로 취약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이 나라들 중 일부에서는 인민들이 군주에게 적대적이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인민들은 호의적이었지만, 귀족들이 적대적이 됨으로써 군주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Machiavelli 2008, 160).

이탈리아의 군주들이 나라를 잃었던 것은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법을 몰랐기 때

『군주론』의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인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한 장들이라 할 수 있다.

19) 또한 『군주론』 20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요새를 쌓는 것보다 인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문이다. 문무를 아무리 연마해도 그것은 자신의 능력만을 키울 뿐이지 권력을 쌓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권력의 기초 자원으로서 정치체의 구성원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고, 그들로 구성된 자국군을 만드는 것이다. 뛰어난 지도자란 바로 자신의 힘과 권력의 차이점 나아가 그것이 한 국가의 힘이 됨을 아는 인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마지막 장에서 이탈리아의 해방을 위해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탈리아라는 몸체의 사지는 멀쩡한데 머리가 문제라는 것이다. 개개인들은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구성해내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군주가 없기에 이탈리아는 문제라는 것이다. 독존의 정치를 행하는 군주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그 국가는 유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의 기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 의지함을 간파하는 지도자만이 서로 상생하는 공존의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군주론』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영웅으로서의 군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군주주의자로 마키아벨리를 해석하건 공화주의자로 해석하건 군주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역사의 창조자로서 그려졌다. 운명의 여신에 맞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영웅적 능력을 가진 군주였던 것이다. 하지만 『군주론』은 군주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귀족과 인민도 나오며, 군대 같은 다른 여타 정치세력들도 등장한다. 군주가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그의 권력은 이들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해석들은 『군주론』의 정치를 군주 혼자만이 존재하는 독존의 정치로 파악해 왔다. 군주의 뛰어난 능력이 그의 권력이며, 군주가 곧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군주의 능력과 그의 권력은 다른 것이다. 군주의 능력은 군주가 소유하는 것이지만 그의 권력은 타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군주가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권력 기반인 타인에 대한 관점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존의 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의 권력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군주의 뛰어난 역량은 자신이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여타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치의 주인임을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틀어 강조했던 것은 혼자만이 중심이 되는 정치는 나라를 유약하게 만들고, 몰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같이 하는 정치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

는 것이다.

투고일 2010년 11월 30일
심사일 2010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1년 1월 3일

참고문헌

- 강정인. 1993. "서론: 마키아벨리의 사상." 켈틴 스키너 외 저. 강정인 편역. 『마키아벨리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곽차섭. 1993. "마키아벨리즘."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운동』. 서울: 지식산업사.
- _____. 1996. 『마키아벨리즘과 근대 국가의 이념』. 서울: 현상과 인식.
- Basu, Sammy. 1990. "In A Crazy Time The Crazy Come Out Well: Machiavelli and The Cosmology of His Da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1. No. 2, 213-239.
- Buck, August. 1985. *Machiavell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Burckhardt, Jacob 저. 정운용 역. 1988.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 서울: 을유문화사.
- Cassirer, Ernst 저. 최명관 역. 1988. 『국가의 신화』. 서울: 서광사.
- Chabod, Federico. 1958. *Machiavelli and The Renaissance*. Tr. D. Moore. Intro. A. P. D'Entreves. London: Bowes & Bowes.
- Cochrane, Eric W. 1961. "Machiavelli: 1940~1960."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33.
- Croce, Benedetto. 1945. *Politics and Morals*. Tr. Salvatore J. Castiglione.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 Dietz, Mary G. 1986. "Trapping The Prince: Machiavelli and the Politics of Decep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No. 3. 777-799.
- Donaldson, P. S. 1988. *Machiavelli and Mystery of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ul, Erwin. 1961. *Der Moderne Machiavellismus*. Berlin: Kiepenheuer & Witsch.
- Fichte, J. G. 1962. *J. G. Fichte-Gesamtausgabe* Bd. 9. Hrsg. Reinhard Lauth und Hans Jacob. Stuttgart-Bad Cannstatt: Friedrich Frommann Verlag.
- Geerken, John H. 1976. "Machiavelli Studies since 1969."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7.
- Gilbert, Felix. 1973. "Machiavellism." In Philip P. Wiener, ed. *The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 Ideas: Studies of Selected Pivotal Idea* 3. 116-126.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Hegel, G. W. F. 1986. "Die Verfassung Deutschlands." *Frühe Schrift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Machiavelli, Niccolò. 1985. *The Prince*. Tr. Harvey C. Mansfield, J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5. *Il Principe, Nuova edizione a cura di Giorgio Inglese*. Torino: Einaudi.
- Machiavelli, Niccolò 저. 강정인 · 안선재 역. 2003. 『로마사 논고』. 서울: 한길사.
- _____. 저. 강정인 · 김경희 역. 2008. 『군주론』. 서울: 까치글방.
- Meinecke, Friedrich 저, 이광주 역. 1990. 『국가권력의 이념사』. 서울: 민음사.
- Münkler, Herfried. 1994. "Republikanische Tugend und Politische Energie: Die Idee der virtù im politischen Denken Machiavellis." In Michael Th. Greven, hrsg. *Politikwissenschaft als kritische Theorie; Festschrift für Kurt Lenk*, 97-107. Baden-Baden: Nomos Verlag.
- Olschki, Leonardo. 1945. *Machiavelli, the Scientist*. Berkley: The Gillick press.
- Parel, Anthony J. 1992. *The Machiavellian Cosmo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Pocock, J. G. A. 1975. *The Machiavellian Mo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usseau, J. J. 저. 이환 역. 1999. 『사회계약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Sasso, Gennaro. 1965. *Niccolò Machiavelli: Geschichte seines Politischen Denkens*.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 Skinner, Quentin 외 저. 강정인 편역. 1993. 『마키아벨리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Skinner, Quentin 저. 박동천 역. 2004.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1』. 파주: 한길사.
- Strauss, Leo 저. 함규진 역. 2006. 『마키아벨리』. 서울: 구운몽.

ABSTRACT

From One-Man Rule To Coexistence: A Reinterpretation of The *Prince*

Kyung-Hee Kim |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ntends to reinterpret Machiavelli's *Prince*. *Prince*'s prince has been seen as a hero, who has supernatural power. He is the single actor in the *Prince*. We call it the 'prince-centric' perspective. In this respect, prince's virtue has been regarded as his power and state's power. But prince's virtue is different from his power. His virtue belongs to him, but his power is constituted by others. Prince's power is based on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his own army, which is recruited from the people. To maintain the power, it is necessary for the princ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thers. Without the politics of 'coexistence', prince can not catch and maintain the power. His virtue is an ability to understand that the master in politics is not the prince himself, but the community members. The *Prince* shows us that the 'prince-centric' politics weakens the state. One of the main teachings of the *Prince* is that the politics of 'coexistence' can only make the state strong.

Keywords: Machiavelli, The *Prince*, politics of coexistence, virtù, power